

도카시키표나히키

전통의 줄다리기

오키나와에서는 여름과 가을의 마을 행사의 일환으로서 전 지역에서 줄다리기를 개최합니다. 도카시키표 예외는 아닙니다. 나하에서 열리는 줄다리기는 세계 최대의 줄다리기로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카시키표나히키가 실시되는 날은 음력 6 월 25 일(현재의 7 월 혹은 8 월)입니다. 마을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두 팀이 경합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서쪽이 이기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동쪽이 이기면 풍어가 된다고 합니다. 마을 동쪽과 서쪽에는 최근까지 순수한 대항 의식이 있었습니다. 섬에 최초로 정주했던 일족의 본가가 서쪽에 살고, 그 본가가 동쪽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쟁이 격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밧줄은 일반적인 밧줄보다 훨씬 커서 직경이 40~45cm입니다. 서쪽 팀을 나타내는 암줄(메즈나)과 동쪽 팀을 나타내는 수줄(오즈나), 각각 45m의 두 밧줄을 엮어서 사용합니다. 각 밧줄에는 고리가 있는데, 암줄의 고리에 수줄을 끼워넣고 가누치보라고 하는 큰 나무 막대로 두 줄을 조입니다. 각 팀의 인원수는 대략 70 명에서 80 명입니다. 밧줄은 손으로 움켜잡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끌어당기기 위한 가는 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밧줄은 일반적인 밧줄을 감은 새끼줄 세 줄이나 네 줄을 합쳐 만듭니다. 옛날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벼농사에 종사하여 신성한 밧줄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신사에 벗짚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벼농사를 하는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짚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지만 후세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벼는 줄다리기를 하기 약 한 달 전에 베어 건조한 다음 밧줄 만들기에 사용됩니다.

줄다리기 당일 아침 신사에서 각 팀의 깃발 꼭대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동쪽의 깃발 꼭대기에는 삼지창과 비슷한 장식이, 서쪽의 깃발 꼭대기에는 초승달과 비슷한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각 팀에서 두 소그룹이 모여 깃발 꼭대기를 가지고 모의전을 치룹니다.

줄다리기는 마을의 동쪽과 서쪽의 경계에 있는 마을 사무소 앞에서 열립니다. 길에 선을 긋고 그 선에서 약 3m 넘게 밧줄을 끌어당긴 쪽이 승자가 됩니다.

참가자 수 싸움이기 때문에 여행객이 팀에 배분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여러분도 오랜 오키나와의 전통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